

대한신경과의사회 제10대 회장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공지

2019년 10월13일(일)에 실시되는 제10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공동 선거운동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을 공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대한신경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 근 호

- 다 음 -

[기호 1번 오동호 후보 정견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제 10대 대한신경과 의사회장 후보 오동호입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개원한지 17년 되었습니다. 작년 초까지 신경과 의사회 부회장과 서울시 의사회장 후보로 일을 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신경과 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책 위원과 구의사회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의사회 모임에 가면 첫 인사로 어려운 의료 환경, 몇몇한 의사로 살기 힘든 현실의 인사말로 시작하곤 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개원의, 의사로 살기 힘든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의료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기에 이번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개원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가운데 치매 국가책임제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신경과의 명암을 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뇌신경질환의 전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환자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를 하지 못하

는 현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보건소 산하에 설치된 치매 안심 센터와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신경과의 전문영역을 침범한 채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은아 회장님을 비롯한 신경과 의사회 역대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후발주자로서 신경과 의사회의 위상이 정책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신경과가 엄연한 노인성 질환의 전문과임에도 노인과 세부 전문의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신경과의 인지도가 그 만큼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개업을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전문과가 공존하는 지역 의사회에서 인정을 받아 구의사회장이 되고 또 서울시의사회장에 도전하였던 것은 의사중의 의사답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료계에서의 위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신경과 의사사회부터 대한 신경과 의사사회까지 의료계에 힘을 모아 신경과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과로서의 권리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다음과 같이 회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

신경과 의사들의 진료 문제와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치매와 노인성 질환에 대해 신경과의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2. 총무

기존의 이사회 임원진을 이어받고 유능한 인재들과 젊은 봉직의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각 직역 및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신경과 의사사회 협동조합을 추진하여 공동구매와 수익 사업등 회원들의 경제적 권익에 나서겠습니다.

3. 학술

신경과 일차의료에 필요한 학술 개발에 예산지원을 늘리겠습니다.

학회 기간 중 개업의 참여 확대 및 개업의와 학회와의 학술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학문의 연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커뮤니티 케어 등 일차의료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에 대한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수면 장애, 우울증, 통증 클리닉등 일차의료에 필요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온라인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4. 보험

신경과 의사회 보험위원회를 강화하고 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3차 상대가치 평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인정 비급여나 급여 수가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와 급여수가 인하의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경과 일차의료에 필요한 신의료기술의 보험 급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경계 전문 재활치료, 언어치료, 인지재활치료, 치매 가족 상담, 초음파 급여화, mri 급여화 등

5 정보 통신

밴드와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 , 회무의 공개 및 보다 신속 정확한 답변으로 회원과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헬스케어 등으로 변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시대에 필요한 신경과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6. 홍보

신경과 관련 주요정책 이슈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 최신경향에 따른 미디어를 활용하여 신경과의 독자적인 미디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회와 공조하여 신경과 질환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저술을 확대하고 타과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 지회의 활성화.

최근 지역의사회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소수의 신경과 의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신경과 모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치매지원센터의 독주를 견제하고 커뮤니티케어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단위 모임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개업의뿐만 아니라 봉직의 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 의협 및 대외 협력 관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상위단체로서 대관 협상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의협 내에서 신경과의 위상을 높이고 협조를 받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한방 문제를 비롯하여 국민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의협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경과 의사회원 여러분 !

신경과 학회 창립 36년 그리고 신경과 의사회 창립 18년을 지나서 대한민국 의료계에 신경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이 순간 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이루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앞장 서주신 이은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신경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3일 개최되는 신경과 의사회 학술 대회와 제 10대 회장 선거가 보다 풍성한 학술과 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

제10대 대한신경과의회장 후보 오동호 배상